萬人의疑惑을싸는 浦項李甲秀의變死

애매한도적누명을쓰고괴로워하다가 고용사는집부억에서일인위립중변사

自殺?他殺? 不可思議의此事實

경북포항행뎡(慶北浦項幸町)에 사는 일인송산무장(松山武藏)의집에고용사는 리갑수(李甲秀)가 그집뒤부억에서 참혹히죽엇는데 이제 그자세한바를탐문한즉 수일전에 권귀송산이가 현금륙십원을 이러버리고 경찰서에 고소를데기한후 그혐의를 갑수에게돌림으로 갑수는 자긔의청백함을 간절히말하엿스나 주인의태도는 의연히자긔들의심키 마지안음으로 갑수는죽던그날오후오시경에 이웃집에사는 목수김영두(木手金永斗)에게와서 자긔의억울함을말하고 만일 경찰서에 붓잡혀 드러가거던 영일군대화면장흥리(迎日郡大和面長興里)에사는 자긔형리갑술(李甲述)에게알려달라는 간청한부탁만남기고 표연히 도라간지 미구에 돌연 참혹한 죽엄을하엿다한다

事件發生當時 日人等態度殊常

부억속에서비명이나는데 오히려도적이라고만부인

注目할變事의裡面

별항과가티 갑수가 김영두의집에서 자긔처소죽송산의집으로도라간지 한시간반만에송산의부억에서 사람잡버지는 큰소리가들리며 키룩키룩도야지소리가튼 소래가 련해나자 남쪽으로이웃 한집일녀한아이밧그로나오며송산의 집에도적이 들엇다고야단을치는 바람에 그뒤편에사는조선사람들이나와 저것은도적의소리가아니라 사람이방금 죽어가는신음성이라하고뛰여드러가려한즉 조품권부터 그집뒷부억을 에워싸고잇던일인사오인이조선사람은 안돼안돼하며 조선사람은드러와서 안된다고 고함을침으로그들은 하는수업시 십여간울타리밧게서 그이상한 소리만듯고서잇슬제 권과 일본사람들은 부억비자들으로 드려다보며말하기를 도적놈이 술이취하여서 방금죽는형용을 한다느니혹은 도적이변소에빠저서 날뛴다고하고 당황히 도리다니든중이옥고 그이상한모래가 그치자다시 구멍으로드려다보니 인케도적이 문을열고 다려낫다하면서도 그쎄부러는 겻헤가기를 두려워하는빗이 드러남으로 지금섯궁금히섯든 조선사람들은 그들의 수상한행동과태도에 너무도의심이나서 와락달려들어 일본인들이 드려다보든 구멍으로 드려다보니 천귀갑수가 무참히업더저 죽어잇섯슴으로 이때부터 군중은 말못할의운에싸히기 시작하얏는데 더구나 주인송산이가 그때야어데로서인지 나타나서 종가!를세마듸부르다음 드리가지아니하고 당황하는 모양과 즉시태도는변하야 가장 냉정한형용을 갓게되는것등은 더욱보는자의마음을떨리게하엿더라

屍體의室內運入을 거절한횡포무도의악마배

리갑수가부억바다에서 죽는소리를치다가 드듸여 절명하기까지의 시간은 삼십분내지사십분동안이라는데 그것을 알만한곳에 잇는사람들이 하등의구조가업고 절명한후에야 비로소소동을 이르키어 또한궁금치 표코자하는빗도업시 경찰에만 뎐화를걸기에 급급하얏다는바를 영포관(永浦館)주인김영석(金永錫)씨들은 크게분개하야 그집부억으로 드러가서 진흙투성이가된 갑수의 시테를안어 방으로드려가고자한즉 방에모혀잇든 일인들은 모다얼굴을찝푸리며 더러우니 드려노치말라고소래를질러 케지함으로 김씨는 더욱분함을참지못하야 이횡포무도한 짐승가튼자들 사람이죽엇는데 자리더럽힌다는 개보다못한수작이 어데잇느냐? 하고긔어히시테를방안에 드려다가누혓다한다

自殺이라主張 警察側公醫는

모혓든군중은 일시소동연출

이급보를접한 포항경찰서순사들과 공의(公醫)가달려와서 검시를하얏는데 그들은 갑수가쥐잡는약을먹고죽은것으로 약간운이올다 괴롭게되니까 자긔의 허리띠으로 목을매고 업더저죽은것이라하야 그자리에모혓던 일반군중은 이 미덥지못한발에 의심을더욱내여 갑수의 죽은원인을 주인송산에게 직접알어보자하야 덤벼들에워싸고잇섯는바 오후 아홉시반경에 일으러 길

◇길이이모양이니◇

인사동일대에침수사십호가난것도무리는아니다(작일긔사참조)

主人松山은 警察에拘禁

雲田에喜雨 아직도계속중

盟休生九名을 檢事局에送致

지난삼일에서류와가티

全州高普紛糾와 司法權의發動

郭山에甘雨 아즉부족하다

平北警官이 上京活動 수확업서도라가

荷車와自働車 義州通에서衝突 짐차부는중상

喜道普通學校 開校式擧行 지난삼일에

水神의咀呪밧는 昨今의人間界

도처의물에서빠저죽는사람이늘어간다

臨津江上流의慘劇

白晝街路에서 現金强奪逃走

犯人을逮捕코저 警官隊東奔西走

그러나犯人은五里霧中

紙幣僞造犯 대판에서발각

教員에게마맛고 生徒에게排斥當해 慶興公普李校長

東京에强盜 하로밤에두곳

少年强盜

三坂通事件 嫌疑者三名

崔尙善公判

平壤染織工盟罷 雇主側讓步로解決

두女子가一時에 萬圓의慰藉料請求

너자를다려다살고서는 법률수속안하고내쏘처

貞操蹂躪으로被訴된富豪

녀자의 생명인정조(貞操)를 유린하고는 그녀자가 법률상으로 혼인계하지안은것을 빙자하야 드듸어 내어버리고만일도 일천원청구의 소송을당한남자가잇섯는데 그피고는평남평원군(平原郡) 일대의 부호 동군숙천면 동덕리(同郡肅川面通德里)신의섭(申義燮)으로 그에게 유린을 당하두녀자로부러 원시에소송을당하엿다 즉―평북 뎡주군 고읍면덕원동(定州郡古邑面德元洞) 일천구십삼번디 박긔뎡(朴基楨)의 딸 박신진(朴信鎭)(一八)과 평남대동군 부산면수산리(大同郡釜山面壽山里)오백오번디 선우당(鮮于塘)의딸 선우화실(鮮于華實)(二〇)인데 권긔신의섭은 대정십사년 유력삼월바 신진과 결혼하엿섯스나 혼인계조차 아니하고 쓸다가 동유력오월에 환가한채 다시 다시돌아보지안앗고 다시 신의섭은권긔선우화실과 동년음력 십월경결혼한후 역시 그와은수단으로 법률상수속외 혼인계를 아니하고쓸다가 금년음력삼월경에 환가한채도 몰아보지안앗슴으로 권긔두녀자는 몸을 유린당하고정신상고통을바더오다가마츰내권긔신의섭을걸어각각일만원의위자료를 청구한것이라는바 동법원 이등(伊藤)판사의주심으로오는이십칠일에 데일회변론을 하리라더라(평양)

爆竹聲에도 失色하는長湍署

위험성이잇다는구실로써 석축전부를압수하얏다고

可憐한老人은 果然죽엇나?

大衆新聞支局

安興校基本金 欠逋事件에對한

李, 柳, 金三人의辨明

라듸오犧牲者

二十歲年長의 姊兄內外를毆打

到處에續出하는無道漢

金額全部를 前設立者에게 청구키로의결

長湍의甘雨 그때도족해

有子生女한 愛妻를抑賣

前代未聞의不義漢

安邊에降雨 더오기를바라

頻頻한竊盜

平南各地喜雨

危險한개장국

薄命한老人 드듸여자살해

姓名不知의 漂流屍體發見

물대러간길이

휘파람